

9

캠핑(야영) 활동

가. 캠핑(야영) 활동 안전 수칙

- 야영 장소는 악천후로 인한 대피 여부를 고려하여 정한다.
- 휴대용 랜턴, 라디오, 밧줄(로프), 구급약품 등을 준비해 둔다.
- 화기(휴대용 가스버너)를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사용한다.
- 바닥이 평평해야 하며, 뒤에 암벽이나 언덕, 산사태 위험이 없는 안전한 곳에 텐트를 친다.
- 밤사이 집중호우 우려가 있으므로 물가나 계곡 가까이 텐트를 치지 않는다.
- 텐트 설치 시 고정 팩은 바닥 끝까지 박아주고 스트링(줄)에는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표지(야광테이프)를 부착하며 비가 내릴 경우를 대비해서 텐트 주변에 배수로를 파도록 한다.
- 야생동물이나 곤충에 주의하고, 뱀 등이 나타나면 절대로 공격을 하면 안 된다.
- 바람이 많이 불 때에는 불 자리(캠프파이어)를 하지 않는다.
- 밀폐된 텐트 안이나 좁은 방에서는 질식,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화기(휴대용 가스버너)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.



안전한 곳에 텐트 설치



기상 상황 살피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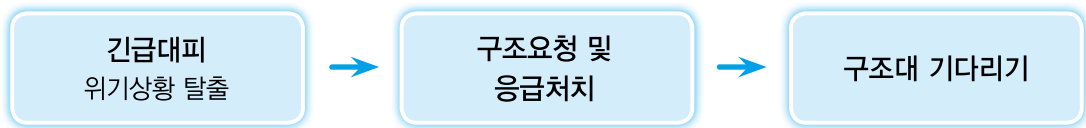


안전하게 화기 사용



빠른 응급처치

나. 사고 발생 시 행동 요령



- 야영 중 물이 밀려들 때에는 물건을 그대로 두고 신속히 대피한다.
- 갑작스런 폭우로 텐트가 침수되었을 때에는 배수구나 하수구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누전으로 인한 감전에 주의해야 하며 위급상황에는 119에 신고한다.
- 갑작스런 폭우로 고립되었을 경우 급격히 불어나는 계곡을 건너지 말고 안전한 곳에서 구조를 기다린다.
- 벌레에 물리면 비눗물로 즉시 씻고, 항히스타민제 연고를 바른다.

다. 사고 사례

- 배수로를 파지 않아서 텐트 안으로 물이 들어와 대피함
- 텐트 주변에서 캠프파이어를 하다가 불이 텐트로 옮겨 붙은 화재가 발생함
- 텐트 안에서 연탄난로를 사용하여 난방을 하다가 가스에 중독되어 질식사함